



혐오와 차별 없이 자유롭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문화 만들기

1. 혐오표현은 왜 위험한가요?(개인에게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은 그 특성상 이미 존재하는 편견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혐오표현을 듣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겪어 온 차별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 가족, SNS 등 일상에서 누군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욕한다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매일 긴장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요? 또한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며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차별로 인해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며, 누가 혐오표현을 할지 몰라 아예 사람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영향	부정적 심리반응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 불안, 걱정, 비애, 수치심, 좌절감, 절망, 막막함, 답답함, 억울함, 분노, 실망, 혼란스러움, 억압받는 느낌, 자책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	피곤, 무력감, 원형탈모증
	스트레스성 심리반응	자살충동, 우울증, 자해,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적 영향	피해자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	일상생활(학업, 일) 유지의 어려움, 고립과 단절
	사회전체에 미친 영향	낙인과 편견의 강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 성적대상화의 심화 프라이버시 침해

2.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요?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있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한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표현이 평등한 관계를 깨뜨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존엄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생각을 퍼뜨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외시키며,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은 폭력이며 차별입니다.

▶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 보호자는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학교의 인권옹호자입니다.

내 용	체 크	
	○	×
학교의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나요?		
학교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학교로부터 학생 보호자를 위한 혐오표현 예방 교육을 제공받고 있나요? ↳ 제공받고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요구하고 있나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와 가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학교에 연락하고 있나요?		
혐오표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 보호자는 학교 밖의 공간에서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환경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내 용	체 크	
	○	×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가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학교 외의 공간에서 학생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있나요?		
혐오표현의 피해를 경험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나요?		
혐오와 차별 문화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모욕감을 주는 표현(모욕형 혐오표현)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표현”

- 성별-김치녀, 쿡광이, 성괴 등
- 나이-급식충, 틈딱충 등
- 인종이나 출신국가-짱개, 동남아, 흑형, 다문화 등
- 종교-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다
- 장애-병신새끼(장애인 비하표현을 욕설로 사용), 결정장애(장애를 부족하고 열등한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말) 등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게이나?, 호모새끼, 게이/레즈 같다(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전제로), 젠신병자 등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선동형 혐오표현)

“편견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심이나 적대심을 가지도록 하는 표현”

- “난민들은 거짓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다.”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 “여성들에게 큰일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2020년 10월 21일

전주신흥고등학교장(직인생략)